



발 행 처: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발 행 인: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
주 소: Danzigerstr. 62·20099 Hamburg
전 화: 040/ 24 34 92
F a 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www.mannam.de
E - Mail: korea-ham@mannam.de
사목회장: 김부남(베드로) Tel 040/63 60 69 06



6 월중 미사 안내

본당 주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 (Herz-Jesu 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미사 30 분 전부터 고해성사
평일 미사 (사제관)	매주 : 월 7:30 화 19:00 수 19:30 목 19:00 금 7:30
	성시간 : 매월 첫 주 목요일 19:00
지방 공동체 미사	Osnabrück : 둘째 주 토요일 Hannover : 셋째 주 토요일 Bremen : 넷째 주 토요일

♣ **Bankverbindung** :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 (Mission)
Dresdner Bank **BLZ** : 200 800 00 **Konto-Nr.** : 560 79 29 00

노르웨이에서 온 편지 - 오슬로 공동체에서



+ 찬미 예수님

우리나라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오슬로 공동체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멀리까지 다달이 잊지 않고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해외교포사목부 여러분께 오슬로 공동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달이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반가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지요.

그동안 저희 공동체 소식을 드리지 못하였는데 이곳 멀리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오슬로 공동체는 1996년부터 독일 함브르크 본당에 소속되어 있는 공소입니다. 신부님께서 일년에 2-3회 정도 방문하셔서 저희 양들을 돌보시고 계시지요.

저희 공동체는 교민과 주재원들, 현지 회사에 취업하신 분들과, 간호사, 교환학생들이 모여 지금은 거의 50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간호사 분들이 오기 시작하였고 올해에도 많은 간호사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한달에 한 번 정도 7~8명이 반모임을 하는 정도였으나 2002년부터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중 하나는 부부 반모임을 하여 출석률이 거의 100%입니다. 교우들이 늘어나고 또한 숨어 계시던 교우들을 찾아내면서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인 신부님이 오시면 한국어로 봉헌되는 미사를 참례하러 오기도 합니다.

신부님이 오시면 다함께 이곳 성당을 빌려서 주일미사도 하고 주중에는 저녁마다 집집이 돌아가며 교리도 듣고 신부님 강의를 듣습니다.

2003년 겨울에는 남자교우 3명이 영세를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 공동체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11월에 로마에 유학하시는 한국 신부님을 모셔서 미리 교리를 일주일 했는데 예비신자와 저희 기존신자들에게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2월에 함브르크 본당 신부님이 오셔서 마무리 교리를 하고 영세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올 6월에는 이곳 주교님 주례로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들 2명과 어른 3명이 준비중입니다. 아마도 많은 은총 속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석이나 명절에는 다같이 모여 조상님들께 연도도 바치고 명절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

지요 모두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신부님이 자주 못 오셔서 저희끼리 영성 서적을 읽고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자기 신앙을 키우
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도 신부님이 한 분 오셔서 한국어 미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손님 신부님이라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작년에는 함브르크 본당에서 주관한 파티마 성지순례에도 4명이 참석하였고 올해는 터키 성지
순례에도 함께 갈 예정입니다.

아직은 어린이와 같은 공동체이지만 곧 신부님을 한 분 모셔서 저희도 작은 한인본당을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한 형제, 자매로 하
느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해외 신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한 감사 드립
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슬로 공동체 회장
김상숙 바르바라



담대히 세상과 맞서는 사람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인간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도록 이끄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인도한다. 요한 복음서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분의 편에 서기를 꺼렸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요한 12:42-43). 즉 하느님보다 사람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베드로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스승을 배반하였고(마르코 14:66-72 요한 18:17 25-27)같은 이유에서 다른 제자들도 수난의 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마르코 14:50 요한 16:32). 이렇게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잃지 않으려는 욕심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속마음과 아주 달리 행동하기도 한다. 성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표리부동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증언한다.

제자들은 성령의 힘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 버리게 되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로 만천하에 담대히 증거한다. 스승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도 성령 강림 직후에 공개적으로 오매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사도 2:14-36). 이런 극적인 변화는 바로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성령은 제자들의 내면 깊은 곳을 변화시키시어

그들이 두려움 없이 세상과대결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이목을 크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선포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은혜라고 하겠다. 식당에 가서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떳떳하게 성호를 긋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 역시 성령의 은혜라고 하겠다. 담대한 신앙 고백은 명확한 대상을 향한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세우면서, 환자나 집안에 우환이 있는 이들에게 조상 중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미사를 몇십대씩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르기에 성령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특색은 공동체와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서 치유 기도를 한다고 다니거나, 점쟁이처럼 과거의 일이 어떻다고 짚어 내기도 하고,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고 이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사도 4:1 5:17-42) 스테파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사도 7 장)

그러나 담대함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은 담대함 때문에 박해 받는 이들의 협조자이시기도 하다. 성령은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협조자이며(요한 14:26 16:13), 신앙 때문에 박해 받는 이들 편에 서 계시면서(요한 15:18-27) 그들이 박해 받는 때에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시는 분이다(마르코 13:11 루가 12:11-12). 우리 순교자들 중에 전혀 배우지 못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에게 어떤 선비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했다. "지옥은 좁고 어둡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비님의 가슴이 좁기는 하지만 수많은 책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선비가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성령은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말을 일러 주신다.

“신비를 만나는 사람들” 순회송에서 발췌

제 31 회 한인친선 배구대회 행사 준비 및 진행 계획

1) 6 월 4 일(금)

19 시에 봉사자 및 “6 조” 운송 준비 완료

- 각 담당자는 미리 모든 장비와 물품을 점검한다
- 자동차 담당: 박휘준, 김성중, 김성용

2) 6 월 5 일(토)

06:00 선발대 출발(사제관 앞에서)

선발대: 박휘준, 김성중, 김성용

06:30 봉사자 전원 집합(공원)

본부석, 천막, 배구장 및 모든 준비 완료

08:30 봉사자 아침식사(빵과 커피 준비)

준비:심동근 이순자, 현영애

09:30 개회식

12:00 점심식사준비 및 점심식사

19:00 폐회식

모든 장비 철수 및 점검

경기장 주위 청소 확인

미리 가본 터키 성지 순례

- 베르게 -

베르게는 지중해에선 13km, 지중해로 흐르는 체스투루스강에선 8km 떨어져 있다. 사도 바울로 시대에는 베르게와 지중해를 배로 오갈 수 있었다. 사도 바울로는 바르나바와 요한 마르코와 함께 1 차 전도여행 때(45~49 년경) 키프로스섬 전도를 마치고 터키의 베르게로 건너갔다. 전도사들이 베르게에 들렀을 때 요한 마르코는 전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려 바울로는 2 차 전도여행 때 그를 데려가지 않았다. 바울로는 험준한 안티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고니온, 리스트라, 데르베 전도를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베르게에서 전도하고 서쪽으로 16km 떨어진 아팔리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기원전 188 년 로마에 편입되어 유적 대부분이 로마시대에 새운 것인데, 주랑이 늘어선 대로, 시장, 경기장, 노천극장, 열탕과 온탕 그리고 냉탕을 갖춘 목욕탕이 돋보인다. 베르게에서 출토된 로마시대 조각품들은 이웃 도시 안탈리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신전터와 시장 모퉁이에 있는 정육점 간판을 눈여겨 볼만하다. 베르게에서 동쪽으로 36km 지점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161~180 년 재위) 때 만든 터키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아스펜도스 노천극장이 있다. 아스펜도스에서 또 동쪽으로 36km 를 가면 시대 항구가 있으며 노천극장과 작은 박물관이 볼 만하다.

관련성서구절 사도행전 13 장 13 절

-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

베르게에서 험준한 안티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 에이르디르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동북쪽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 알바츠 동쪽 1km 지점에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폐허가 남아있다. 베르게에서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까지는 약 160km 떨어져있다. 시리아에 셀레우코스 왕조를 창시한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기원전 301 년 이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버지 안티오키오스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키아라고 명명했다. 기원전 25 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곳에 로마군을 주둔시키고 로마인 거주지로 삼았다. 사도 바울로는 1 차 전도여행 때 베르게에서 험준한 안티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고니온, 리스트라, 데르베에서 전도했다. 바울로는 안티오키아에서 두 안식일에 걸쳐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으나 배척당하고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갔다. 바울로가 제 2·3 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들렀다는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들렀으리라고 추정된다.

로마시대 유적으로는 서기 14 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은 후 황제를 기려 세운 아우구스투스 신전도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수처크터'샘에서 물을 끌어온 상수도교가 돋보인다. 그리고 도심에는 비잔틴

시대에 지은 바울로 대성당 초석이 남아있다. 대성당을 짓기 전 작은 성당이 있었는데 성당바닥에서 이곳 주교 유티모스(357~381 년경 재직)의 이름을 새긴 모자이크 두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작은 성당은 본디 유대교 회당 자리였음이 판명되었다. 터키에서 유대교 회당터에 성당을 세운 사례는 이곳뿐이다. 바로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로가 두 안식일에 걸쳐 유대인 동족에게 전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성서구절 사도행전 13 장 14~52 절

- 이고니온 -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지금의 알바츠)에서 이고니온(지금의 코니아)까지는 180km 떨어져있다. 사도 바울로는 1 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어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 했다. 2·3 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로가 다시 이고니온을 찾아왔다는 명시적 기록은 없으나 재차 삼차 방문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11 세기에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코니아를 수도로 삼아 셀주크 제국을 세웠다. 13 세기에 이슬람 신비주의자 무리가 여기서 메블라나 신비주의 종파를 창시했다. 그에 의하면 정신없이 빙글빙글 춤을 추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알라를 느낀다는 것이다. 코니아의 유적은 모두 셀주크 제국 및 메블라나 신비주의와 관련된 것들이다.

시내 한복판 셀주크 궁성 옛터(지금의 알리딘 파르키) 둘레 도로 남쪽에 1910 년에 지은 성 바울로 성당이 있다. 코니아 고고학 박물관 마당에 사도 바울로와 관련이 있는 비석 둘이 있다. 리스트라 비석과 테르베인들이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의 은덕을 기려 157 년에 세운 송덕비이다.

관련 성서구절: 사도행전 14 장 1-7 절

- 아탈리아 -

아탈리아(지금의 안탈리아)는 기원전 2 세기에 베르가모 왕국의 앗탈로스 2 세가 세워 자기 이름을 명명한 도시이다. 사도 바울로는 1 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여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경관이 빼어나고 지중해 바닷물이 맑고 따뜻해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도시임에도 가톨릭 성당은 없다. 아탈리아에 바울로 시대 유물은 절벽아래 옛 포구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서기 130 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방문을 기념하여 세운 삼중 성문이 있을 뿐이다. 안탈리아 박물관에는 베르게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발굴된 로마시대와 비잔틴시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박물관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과 앙카라 아나콜라어 박물관 다음으로 유명하다.

관련 성서구절: 사도행전 14 장 21-28 절

참조: 정양모 „ 위대한 여행, 사도 바울로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에 붙지만 말고 세계를 타라

류신 (토마스 아퀴나스, 브레멘)

거미. 온몸에 거뭇거뭇하게 돋아난 불길한 가시털과 사방으로 버르적거리는 일곱 지질의 다리, 그리고 포획한 먹이를 질식사시키는 점액질의 독샘. 하지만 이런 흉물스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서 설새없이 실을 뽑아 그물을 짓는 거미의 긴절한 수고, 그 "유행에 둔한 건축법"(조말선, 「거미」)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실로 묘오(妙悟)한 길쌈 솜씨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조선 후기 문인 이덕무(李德懋)는 산책 중 우연히 눈맞춤을 한 거미의 기민한 발놀림에서 감전(感電)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여름날 저녁, 콩꽃이 피어난 울타리 가를 거닐다 거무튀튀한 거미가 실 뽑는 것을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오묘한 깨달음이 부처와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을 뽑아내고 또 그 실을 깎는데 다리 움직이는
방법이 영롱하였다. 때때로 멈칫대며 의심하는 듯하더니, 때로 획 내닫기도 하는 것이 마치도 보리
모종하는 사람의 발뒤꿈치도 같고 거문고를 통기는 손가락 같기도 하였다.

-정민,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 열림원 2000 년, 92 면.

능수 능란하게 "거문고를 통기는" 거장의 손놀림처럼, 베를 짜듯 집을 엮는 거미의 탁발한 솜씨가 "부처와도 통할 수 있"음을 깨달은 이덕무의 혜안이 돋보인다. 방적돌기에서 자아내는 주사(蛛絲)를 바람에 날려 다른 편에 얹혀 붙이고, 이것을 보강하여 튼튼한 다리줄을 만든 후, 이 다리줄을 기점으로 몇몇의 지점을 만들어 테두리줄을 치고, 다시 그 안쪽에 방사상으로 세로줄을 쳐가면서 촘촘한 원형의 그물망을 만드는 거미.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허공에 자신의 우주를 펼쳐 가는 거미의 "영롱한" 움직임이 흡사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전지 전능한 신의 섭리와 빼어 닮지 않았는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다. 나뭇가지 사이에 진을 치고 있던 작은 망상(網狀) 조직을 두루 하늘에 펼쳐 놓으면 무엇이 될까? 정호승은 이렇게 확대·팽창된 그물망을 하늘의 도리이자 법도로 읽는다. 우주의 삼라만상을 관장하는 천리의 그물망, 아름다운 거미줄 성좌! 누가 감히 이 천리의 그물코를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인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하늘에 짠 그물은 하도 커서 그 올이 성기어도 무엇 하나 빠뜨리는 것이 없다[天網恢恢 疎而不失]"는 구절을 오랫동안 저작(咀嚼)한 후,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하늘의 그물」)란 시구를 한달음에 토해 낸다.

이런 맥락에서 거미는 '하늘의 그물'을 짠 조물주에 비유될 수 있다. 고대 켈트인들 또한 거미줄을 모든 존재의 생명을 하나로 묶는 정교한 그물망의 상징으로 믿었다고 한다. 최승호 역시 거미를 "제가 친 그물에는 절대로 걸리지 않는/자유자재한 왕", 혹은 대승 불교에서 모든 법의 진실상과 통정한 지혜의 왕을 일컫는 "반야왕거미"로 높여 부른다.

너는 조물주를 흉내낸다

너는 깨워낸다 세계를

펼치고 그 위를 걸어간다
 망가진 세계를 너는 기울 줄도 알지
 다 낚아버린 세계는
 우적우적 먹어버리지
 제가 친 그물에는 절대로 걸리지 않는
 자유자재한 왕
 걸려 있는 것은 찢든한 인간들이다
 엉겨붙어 신음하며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인간들을 보며
 반야왕거미는 말한다
 세계에 붙지만 말고 세계를 타라
 이것이 비밀이다

—최승호, 「반야왕거미」 전문

이 시의 의도는 거미의 탁발한 창조력을 찬탄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시인은 거미를 세계를 "게워"낸 "조물주"로 돈을새김함으로써 거미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조롱의 쓴맛을 남긴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그물'이 속세로 내려 와 '땅의 그물'이 되면 파닥일수록 더욱 옥죄어드는 삶의 오랏줄이 될 수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난마처럼 뒤엉킨 복잡다단한 관계 사슬에 "엉겨붙어 신음하며 허우적거리는" 인간들, 그리고 그 위에서 조금은 거만한 포즈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반야왕거미. 이렇듯 시인은 '높은' 거미와 '낮은' 사람이란 풍자적 뒤집기를 통해 아등바등 우겨대고 복닥대는 우리네 모듬살이의 숙명적인 비애를 발가벗긴다. 그리하여 이제 자비로운 반야왕 거미는 삶의 신산고초에 시달리는 "찢든한 인간들"을 가없이 여겨 "비밀" 하나를 누설하기 이른다. "세계에 붙지만 말고 세계를 타라". 지상적 삶의 그물에 악착같이 매달리지 말고 세상을 물 흐르듯 순리대로 타고 가라니, 도대체 어떻게? 소설가 이윤기(李潤基)는 이 잠언과 같은 시구를 캐도난마의 장기로 이렇게 풀어낸다.

타인과의 관계는 이생의 소용돌이다. 너의 원심력을 시험하라. 타인에게 체중을 신지 말라. 이생의 소용돌이와 싸우되 너 자신을 만나라. (...) 사람의 그물에서 벗어나라. 사람의 그물에서 벗어나 하늘이 짠 이치의 그물을 인식하라. (...)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짠 이치의 그물에서도 벗어나라 (...) 이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보라.

—이윤기, 『하늘의 문』 제 3 부, 178-179 면.

하지만 "이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우주로 날아가"기엔 우리를 포박하는 "이생의 소용돌이"는 너무도 흡입력이 강하고, 그것과 화간(和姦)하려는 인간의 욕망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하늘의 그물'에서도 탈주하라니, 말처럼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성싶다.

6 월의 독서자 (햇빛반)

일	독서자
6 일	한독부부
13 일	배연자(말지나) 김점선(실비아)
20 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27 일	박춘실(리차드) 권우애(실비아)

7 월의 독서자 : 햇빛반

제병, 포도주 봉헌자

6 월 06 일: 최성자(벨라멧다), 이준열(스테파노)
 6 월 13 일: 최성욱(스테파노), 장경순(엘리자벳)
 6 월 20 일: 이현묵(요셉), 권오상(마리아)
 6 월 27 일: 이경규(안스카), 유국지(아그네스)
 7 월 04 일: 정정숙(아나벨), 정명옥(살로메)

♪ 카페당번 순서 ♪

6 월 06 일: 은총반
 6 월 13 일: 비둘기반
 6 월 20 일: 레지오마리아(평화의 모후)
 6 월 27 일: 살롬반
 7 월 04 일: 동글레반

☺ 주일안내 ☺

6 월 06 일: 살롬반
 6 월 13 일, 6 월 20 일: 레지오마리아
 6 월 27 일, 7 월 04 일: 비둘기반

6 월 모임

- ◎ 사목회의: 2 일(수) 예수성심성당
- ◎ 반장회의: 24 일(목) 사제관 친교실
- 레지오 마리아
 자비의 모후: 매 주(월)
 19 시 30 분 사제관 친교실
 죄인의 의탁, 평화의 모후· 믿는 이들의 모후
 : 매 주(화)
 19 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 기 도 회: 둘째 주, 넷째 주(목)
 16 시 사제관 친교실
- 성 가 대: 매 주(수)
 19 시 30 분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 울뜨레아 회합: 20 일 미사후.

6 월 반 복음 나누기

- ▶ 햇 빛 반 : 6 월 06 일 미사후
 김용일 다윗님 가정에서
- ▶ 무궁화반: 추후 알림
- ▶ 비둘기반: 추후 알림
- ▶ 동글레반: 추후 알림
- ▶ 살 롬 반: 추후 알림
- ▶ 은 총 반 : 6 월 09 일 10 시 30 분.
 유서라 유스티나님 가정에서
 전화-88099782

6 월 영명 축일

▶ 본명과 축일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분은 편집부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Hamburg 공동체

6 월

01 일 유스티노 정창호
 05 일 보니파치아 손숙경
 13 일 안토니오 송석원, 김성용, 김현규
 18 일 엘리자벳 이윤수
 19 일 율리아 허주원
 24 일 요한 김성철, 김민규, 남궁경,
 박진태, 송준석, 심임보,
 이호선
 28 일 리오바 김혜린
 29 일 베드로 김기철, 김부남, 박장윤,
 서상부, 오성현, 이강협,
 이영원, 장갑수, 최윤석
 페트라 김상미
 바오로 송문규, 이동명, 이민재,
 박학전

Bremen 공동체

05 일 보니파치아 태희준
 07 일 안토니오 김규민
 09 일 안나 마리아 채두리
 18 일 엘리자벳 이설의
 19 일 율리안나 김유경

Hannover 공동체

29 일 바오로 이범이

Osnabrück 공동체

19 일 율리안나 최유리
 24 일 요한 김원철
 29 일 바오로 최한우

Braunschweig 공동체

29 일 베드로 정이수

소식

▶ 5월03일 (월) 10:30시 고 김인숙(헬레나) 자매님의 장례미사가 예수성심성당에서 있었으며 하관식은 12:30시에 Ohlsdorf 공원 묘지에서 이제민 주임신부님의 집전으로 있었음

▶ 5월06일 (목) 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에서 사목회의가 있었음
" 회 의 내 용 "

☞ 5월8일-9일까지 우리공동체에서 함부르크와 베르린공동체 만남의 행사

- 점심식사는 12시에 Danziger Str. 강당에서 하도록 준비한다.

- 장소준비를 위하여 사목위원들은 11시까지 강당으로 나온다.(점심식사 후 청소년들은 Jugendherberg 으로 이동함)

- 저녁식사는 사목위원들이 반찬을 준비하여 사제관 친교실에서 베르린 손님들과 함께 나눈다.

☞ 5월9일(주일) 어머니날 꽃 준비는 주일학교에서 한다.

☞ 5월23일(주일) Dr. Jaschke 보좌주교님 방문하신다.

- 커피, Kuchen 꽃다발을 준비한다. (이순자 마리아 여 부회장이 준비한다)

☞ 5월30일(주일) 성령강림 대 축일 야외미사 및 본당의날 행사

- 장비 및 물품준비 내역 검토와 임무 분담.

- 주류는 맥주만 준비하고 소주등은 준비하지 않는다.

- 배구대회 행사에도 소주는 준비하지 않는다.

- 5월30일 예정한 Rendvabis 특별헌금은 5월23일에 실시하고, 5월30일은 "북한용천역" 열차폭발로 피해를 입은"북한동포"를 돕기위한 특별헌금을 한다.

- 보물찾기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 5월8일-9일까지 있는 제5회 함부,벨린,브레 공동체 청소년 만남.

- 우리본당 주관하에 Horner-Renbahn Jugendherberg에서 열린 청소년 만남 행사는 5월8일 10시경 예수성심성당 앞에 도착한 베르린청소년들은 시내관광을 시작으로 하여 1박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갖었음. 이번행사를 위하여 수고한 최성민 청년대표와 준비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식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목위원들과 자매님들, 5월9일 도시락 준비에 수고하신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5월9일 (주일) 어머니날 행사에 어머니께드리는 노래와 글, 그리고 꽃을 다라드려서 기쁘게 해드린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축하드립니다.

5월15일(토) 17시 박요한 형제님과 이정은 (프란치스카)자매님의 결혼식이 새 한인교회에서 인대선목사님의 주례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안에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5월15일 (토) 한인교회에서 주최한 교민친선 탁구대회에 우리본당에서는 허채열 복음화 분과장님의 인솔로 출전하였음, 장년 남, 녀, 개인 및 단체전에 출전하여 서상부 형제님께서 개인전에서 1등을 하였음. 본당의 명예를 걸고 출전해주신 선수들과 열심히 응원해 주신 교우님드께 감사드립니다.

▶ 5월 22 일(토) 20 시 사제관 친교실에서 성모의 밤 행사에 행사중 초 봉헌과 꽃 봉헌이 있었으며 행사를 위해 준비해주신 오명순 전례분과장님과 유학생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축하드립니다. 5월 30 일: 정명옥(살로메) 자매님께서 베네딕도 수도원 봉헌회 (Oblaten) 회원으로 서원하였습니다.

☞ 봉헌회란?: 세상 안에서 수도자처럼 자신을 봉헌한 삶을 사는 수도회를 말함.

☉ 유럽 사제 회의: 6월 14-18 일 영국에서 열리는 사제회의에 본당 신부님이 참석하시기에 이 주간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	4월 25일	5월 2일	5월 16일	5월 23일
계 (euro)	157,30	195,81	183,64	161.50 특별헌금 162.64

지방 공동체 소식

Bremen 공동체 -----

Hannover 공동체 -----

Osnabrück 공동체 -----

Braunschweig 공동체 -----

6 월 전례 및 행사

6 월	요일	내 용
1	화	
2	수	19 시 30 분 미사후 사목회
3	목	미사후 성시간. 환자 봉성체
4	금	
5	토	배구대회 (모두 함께 기쁨마음으로)
6	일	
7	월	
8	화	
9	수	
10	목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대축일. (성체거동 St. Marien.성당과 합동)
11	금	
12	토	
13	일	가톨릭의날(Ulm), 특별헌금 있습니다.
14	월	유럽 사제회의(14-18 일)
15	화	"
16	수	"
17	목	"
18	금	"
19	토	
20	일	울뜨레아 회합
21	월	
22	화	
23	수	
24	목	미사후 반장회의
25	금	
26	토	
27	일	
28	월	
29	화	
30	수	
비 고		